

“법은 휴일, 현실은 근무”...노동절 사각지대 여전

#1 전남 화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동티모르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타씨는 다음달 1일 노동절에도 평소처럼 출근할 예정이다. 코스타씨는 “한국에서는 노동절이 쉬는 날이라고 들었지만 우리 공장에서는 해당이 없다”며 “하루 쉬면 그만큼 임금이 줄어들어 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한국인 직원들의 경우는 일부는 나오고 일부는 쉬는 교대 형식으로 근무한다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2 북구에서 5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심모씨(35) 역시 노동절 휴무를 기대하기 어렵다. B씨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라며 정상 출근 공지를 받았다”며 “공휴일이라지만 우리 같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해당 없는 이야기”라고 토로했다.

특수고용·이주노동자·소규모 사업장 미적용 비일비재 “쉬면 임금 깎여...‘모든 노동자의 날’ 취지 무색” 비판

오는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노동자들이 여전히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8일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3명 중 1명가량이 노동절에도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셈이

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된 것이 때문이다.

특히,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대표적인 사각지대다.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은 사실상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노동절 유급휴일뿐 아니라 연차·퇴직금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노동절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거나 오히

려 수요 증가로 근무 강도가 높아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휴일 개념 자체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구조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근무를 하면 사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편의점, 카페 등 소규모 자영업 사업장에서는 법 적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고용불안과 언어 장벽으로 인해 권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절 개념 자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역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조항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노동절 유급휴일 역시 사실상 강제력이 약하다.

이에 따라 같은 노동을 하고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식권이 달라지는 ‘차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플랫폼 경제 확산과 고용 형태 다변화로 전통적인 ‘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법적 보호 밖에 있는 노동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가 변화된 노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협소해 다양한 형태

의 노동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최소한의 휴식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절과 같은 상징적인 날조차 쉬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입장이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아예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형식만 프리랜서인 노동자의 수는 무려 900만명”이라며 “노동절이 공휴일이 됐으니 이들은 쉬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절은 특정 집단만의 휴일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위한 날이어야 한다”며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제네시스가 세계 최고의 내구레이스 무대인 WEC(월드 엔듀어런스 챔피언십) 하이퍼카 클래스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페라리도 놀랐다”...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데뷔

WEC 2026 개막전서 하이퍼카 두 대 레이스 완주 성공

제네시스가 세계 최고의 내구레이스 무대인 WEC(월드 엔듀어런스 챔피언십) 하이퍼카 클래스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제네시스 소속 라이싱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단순한 참가를 넘어 전통의 강호 페라리를 코너에서 압도하는 성능을 선보이며 역사적인 첫 레이스의 목표였던 완주에 성공했다.

제네시스는 고성능 레이싱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2026 FIA WEC 개막전 ‘이몰라 6시간’ 레이스에서 첫 완주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안드레 로테라, 피코 테라니, 다니엘 훈카데라, 마티스 조베르, 마루 자미네, 폴-루 사탕 등 베테랑부터 신예까지 다양한 드라이버 라인업으로 첫 대회를 출전했다.

경기 중반 #17 경주차에 탑승한 안드레 로테라는 피트인 직전 11위로 올라서고 이후 운전대를 넘겨받은 마티스 조베르는

에스턴 마틴을 깔끔하게 추월하기도 했으며 세 번째 드라이버 피코 테라니로 교체한 이후에는 순위가 9위까지 오르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특히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팀의 마티스 조베르를 뒤쫓던 페라리 팀의 니콜라 스피넬이 팀 라디오를 통해 “저 자가 왜 우리보다 코너에서 빠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놀라움을 표하는 장면은 이날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팀이 펼친 놀라운 레이스의 상징적인 장면이 됐다.

6시간의 경기 결과 #17 차량은 약 4909km 길이의 이몰라 서킷을 평균 시속 177.97km로 211랩, #19 차량은 평균 시속 176.23km로 189랩을 돌며 각각 15위와 17위를 기록했다.

또 #17 차량의 베스트 랩 타임은 완주를 목표로 안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하는 전략 속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도요타 레이싱의 하이퍼카의 베스트 랩 타임과 0.6초 차이에 불과했다.

제이 엑스 브랜드 파트너 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어드바이저는 “대단한 성공”이라며 신생 팀의 완주에 대해 평가했다.

시릴 아비테를 현대모터스스포츠법인장 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총감독은 “신규 참가팀으로 절대적인 성적이 연연하기 보다는 신뢰성과 실행력에 목표를 뒀다”며 “이번 주말을 통해 확인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팀의 탄탄한 기반과 잠재력”이라며 만족했다.

한편 현장을 찾지 못한 팬들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늦은 밤부터 이른 새벽까지 계속된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이 제공하는 온보드 라이브 영상 채널에 방문해 경기를 지켜보며 실시간 채팅창에 응원 글을 남겼다.

이날 경기에서 #17 차량과 #19 차량은 보드 영상 채널 합산 최대 동시 접속자수는 5000명을 기록했으며 #19 차량의 온보드 영상은 지난 28일 기준 누적 조회수 12만회 및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WEC에 도전하는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을 응원하는 뜨거운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KT, 고객보호365TF 가동...예방 중심 체계 전환

AI 실시간 탐지 체계·원스톱 해결센터 등 운영

KT는 예방 중심 고객 보호체계 전환을 이끌 ‘고객보호365TF’를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고객보호365TF는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자적 차원의 고객 가치 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주요 실행 과제는 △AI 기반 실시간 탐지 △원스톱(One-stop) 해결센터 △찾아가는 고객경청포럼 운영이다.

AI 기반 실시간 탐지 체계는 온·오프라인 전 채널에서 접수되는 VOC(고객 문의)를 즉시 분석해 고객 불편 요소와 잠재 리스크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고객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서비스 개선과 보호 조치로 신속히 연결되는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아울러 KT는 현재 운영 중인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와 AI 문맥 기반 스팸 차단

서비스를 포함한 폭넓은 안전·안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스톱 해결센터는 고객 피해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관리하고, 24시간 내 해결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AI 기반 VOC 분석과 전자 협의 체계를 통해 상담사 개인 역량에 의존하던 방식을 개선하고, 대응 품질과 고객 경험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찾아가는 고객경청포럼도 지속 운영한다. 고객경청포럼은 경영진이 매일 사회 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는 소문 프로그램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전쟁·관세 악재 속 중기 1분기 수출 ‘역대 최대’

중기부, ‘2026년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 발표 ‘수출액 298억 달러’ 온라인 수출 첫 3억 달러 돌파

중동전쟁 여파에도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K-뷰티의 활약에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6년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298억 달러(43조 9800억원)로 집계됐다. 잠정치 기준 역대 1분기 최고치다.

온라인 수출(3억 달러)은 미국(+25.1%), 중국(+43.4%), 영국(+191.6%)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분기 최초로 3억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 중소기업은 6만4706개사로 전년 동기 6만3033개사 대비 2.7% 증가했다.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역시 2735개사로 14.4% 늘었다.

수출 증가세는 중소기업 효과 품목인 화장품이 이끌었다. 21억8000만달

러로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권역별로 △아시아 10.4억 달러 △북미 4.6억 달러 △유럽 5.0억 달러 △중동 0.8억 달러로 집계됐다.

중동(16.1%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 등으로 유일하게 감소했지만, 유럽(43.7% ↑)과 미국(37.6% ↑)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세를 견인했다.

온라인 화장품 수출 역시 미국(60.8% ↑), 중국(91% ↑), 영국(282% ↑)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74.2% 증가한 2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11억3000만 달러, 55.6% ↑)도 힘을 보탤다.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으로 고성능 통신장비나 클라우드 서버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늘었다. 특히 홍콩(214.8% ↑), 베트남(35.4% ↑), 대만(82.5% ↑)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주요 수출국에선 중국, 베트남, 홍콩, 대만, 인도, 태국 6개국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했고, 미국, 일본, 멕시코, 인도네시아 4개국 수출은 감소했다. 중소기업 최대 수출국인 중국(48억8000만 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 스마트폰 부품용 등 박 등 구리 가공제품(3억 달러) 수출 호조와 의류(1억5000만 달러) 수출 증가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1분기 수출에는 중동 전쟁의 여파도 반영됐다. 화장품과 함께 중소기업 수출 효과 품목으로 불리는 자동차(14억7000만 달러) 수출이 15.2% 감소했다. 러시아의 수입차 부과 세금 인상과 중동 전쟁에 따른 해운 봉쇄 영향에 6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심재운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급격한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 제품 다양화, 주력 수출제품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추경으로 마련한 물류바우처 등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삼성전자, 차세대 가전 ‘히트펌프’로 시장 공략

기술력·인프라로 선도 난방 전기화 사업 가속

삼성전자가 차세대 가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히트펌프 기술력을 앞세워 국내 난방 전기화 사업에 속도를 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성능과 효율, 탄소 저감을 강화한 한국형 ‘DHS 히트펌프 보일러’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히트펌프 솔루션’은 외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 내부의 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전환 솔루션으로, 냉매가 액체와 기체 상태를 오가며 열을 흡수·방출하는 성질을 활용한 ‘증기 압축 사이클’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외부에서 열을 흡수한 냉매는 압축기를 거쳐 고온·고압의 기체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열이 열교환기를 통해 실내의 공기나 물로 전달된다.

열을 방출한 냉매는 다시 팽창하며 온도가 낮아지고, 외부에서 열을 흡수할 수 있는 액체 상태로 변환된다. 이 순환이 반복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 투입만으로도 높은 열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히트펌프 솔루션은 대용량 열교환기가



삼성전자 DA사업부 송병하 그룹장이 ‘EHS 히트펌프 보일러’ 제품의 주요 특징점을 설명하고 있다.

타페됐고, 압축기 내부 밸브가 한층 효율적인 구조로 설계돼 압축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다.

또 외기 온도 및 운전 조건에 따라 시스템을 최적 제어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안정적인 난방 성능을 유지한다.

히트펌프 솔루션은 국내 주거 환경과 기후 특성에 최적화된 기능을 대거 탑재해 한층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약 60%가 더 낮다.

삼성전자는 차별화된 히트펌프 성능 구현을 위해 북미, 유럽, 일본 등 20여 개 지역에서 히트펌프 연구소와 테스트 랩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고려대학교와 차세대 히트펌프 난방, 고효율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을 진행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송병하 그룹장은 “히트펌프는 전기 난방화 전환과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솔루션”이라며 “검증된 기술력과 글로벌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안정적인 난방 성능과 에너지 효율 가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부터 전남, 제주, 경남 등 주요 지자체 내 연탄·등유 보일러 사용 가구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보일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자는 지자체 공고문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제품 설치 완료 후 지자체의 현장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